

#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봉행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광화문을 밝힌 석가탑등불



▲ 광화문 점등식

지난 4월 25일 저녁 7시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위원장 설정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불법승 삼보의 구호에 맞춰 국보 제 21호 불국사 삼층석탑을 전통기법을 살려 한지 등으로 재현한 연등을 환하

게 밝혔다. 석가탑 사방에는 4점의 흰코끼리등불이 설치됐다. 흰코끼리등불은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염원하는 의미를 띠며 부처님의 탄생을 상징하고 있다. 연등회의 주제가 '평화'인 만큼 점등식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점등식에 참석한 불교총지종 총리위원장 인선 정사와 봉축집행위원장 정우 스님, 서울시장 박원순, 종단협 회원 스님과 사부대중 앞에서 봉축위원장 설정 스님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회향돼 국운이 융창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롯한 모든 국민의 꿈과 마음이 편안토록 살펴달라"고 축언하였다. 이어 사부대중은 세종대왕 동상을 반환점으로 탑돌이를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랐다.

점등식에 앞서 국가 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 축제를 알리기 위한 글러벌 서포터즈가 플래시몹 연희 율동을 선보였다.

광화문광장에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함께 발걸음을 멈추고 종로와 청계천, 서울 시내에 설치된 5만 여개의 가로연등불 밑에서 추억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였다. 강동화 기자

#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식 "시대적 가치·행복 구현에 천태종 역량 집중"



▲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식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의 취임식이 4월 11일 봉행됐다.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지종 총리위원장 인선 정사, 진각종 총리위원장 회성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정 스님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하승창 청와대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1만 여 명이 동참했다. 취임식은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고불문, 종정스님 법어, 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이임사, 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신은 상주하사 가피 내려 주시니 자비하신 그 은혜 깊어 길이 없다"며 "수승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때맞춰 내리는 비 모든 약초 이롭게 하듯 천태일승 묘법 세상에 두루 퍼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오르게 하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취임사에서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불조의 계명을 받들고 종지종통을 바탕삼아 더욱 내실 있는 종단이 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며 "전법교화와 함께 시대적 가치와 행복을 구현하는 일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설정 스님은

부회장 회성 정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문덕 스님은 오랜 수행력과 덕망으로 우리 사회에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지표를 넓게 실현하실 것이라 불교계 모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천태종단을 넘어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라도 지혜와 자비의 행보를 널리 펼쳐주시리라 축하의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앞서 춘광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저에게 더없이 귀한 정진의 시간이었다고 제불보살님과 종단의 은덕을 갚을 기회였다"며 "이제 방사로 돌아가 그 사무처 깨우친 바를 더욱 절차따마해 안분(安分)을 수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1971년 상월원각 스님을 은사로 구인사에 입산해 1975년 남대총 대종사를 계사로 수계·득도했다. 재무부장, 사회부장, 총무부장, 종정사서실장, 종의회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전 삼문사, 대구 대성사, 울산 정광사 등 여러 사찰의 주지를 맡아 불사와 전법교화에 앞장섰다. 지난 3월 19일 종현종법에 따라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지명받았다.

# 부산·경남, 지혜와 자비로 세상의 등불 밝혀 부처님 자비정신 널리 알려지기를...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과 울산, 창원지역 불자들이 부처님 자비와 지혜를 알리고자 연등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부산 연등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봉축행사를 준비를 시작했다. 올해 부산연등축제는 5월 1~13일, 총 13일간 펼쳐진다. 행사의 막을 올리는 개막점등식은 5월 1일 오후 7시 송상현 광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는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됐지만 올해 화려한 연등을 보고 싶다면 송상현 광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통등 및 거리등, 등터널과 각종 전시등이 어둠을 화려하게 밝힌다. 장엄등은 총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통문화체험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무료이며 전통문화공연,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무차만발공양, 제34회 연꽃문화제 등이 마련된다.

(사)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남현)는 3월 30일 옥동문화회관에서 2018년 대화강연등축제 봉행위원회를 결성했다. 대화강연등축제는 오는 5월 12~13일 대화강 둔지 일원(구, 대화호텔 앞)에서 개최된다.



▲ 2017 부산연등축제

대화강연등축제점등식은 12일 오후 8시 야외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13일에는 부처님이 율행렬재연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이 화려하게 열린다. 매년 대화강연등축제봉행위원회는 부처님이 율행렬을 재연하고 시민참여도 받고 있다. 부처님이 율행렬 재연은 오후 5시 태화루를 출발해 봉축법요식 행사장에서 마무리된다. 봉축법요식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며, 제등행렬이 뒤이어 화려하게 도심을 밝힌다. 제등행렬 동선은 약 2.2km이며 행사장을 출발해 신정시장, 울산시청, 롯데사거리에서 해산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4월 3일 창원호텔 만다린에서 봉축임원회

의를 열어 창원시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8일 창원시 연등축제를 진행 중원로터리와 중원천터에서 진행기로 결의했다. 연등축제 식전행사는 봉축문화화합마당이 오후 5시에 시작하며, 연합봉축법요식은 오후 7시 봉행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창원시 연등축제 봉축법요식은 4월 30일~5월 22일 창원광장(시민탑뒤)에서 만날 수 있으며, 시민안영을 기원하는 연꽃등은 5월 4~22일 마산합포구청 광장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은 5월 19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제등행렬은 창원광장을 출발해 삼남시장, 삼일상가를 돌아 창원광장에서 회향한다.

# 조계종, 文 대통령 10.27법난 공식 사과 환영 불교계 명예 회복과 불교의 화합과 융성을 기원

조계종이 문재인 대통령의 10.27법난(신군부 한국불교 침탈사건) 공식 사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18일 대변인 기획실장 금산스님 명의로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10.27법난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불교계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10.27법난의 아픈 상처를 딛고 국민의 화합과 국가발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회장 설정스님) 주최로 열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역대 대통령 최초로 10.27법난에 대해 유감을 표명



▲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사진제공:청와대)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불교는 군부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종교의 영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며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10.27법난은 국가 권력에 의한 불교계 탄압사건이다.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세력은 불교계 정화를 명목으로 군인과 경찰을 전국 사찰에 보내 200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을 끌고 가 고문하고 범죄자로 몰아 불교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3월 21일 ~ 4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전세형	4/5	30,000
동해사	탁상달	4/12	20,000
백월사	김강미자	3/30	10,000
법황사	박미경	4/18	10,000
삼밀사	신막심	3/21	20,000
	신말심	4/2	50,000
성화사	이학열	4/11	40,000
	허태연	4/11	10,000
자석사	구미자	4/2	10,000
	원당	4/13	10,000
	묘심해	4/13	10,000
	손경옥	4/16	10,000
	이수경	4/18	10,000
총지사	신용도	4/18	10,000
	박정희	4/18	10,000
	무명씨	4/20	50,000
화음사	무명씨	3/29	10,000

화음사	무명씨	4/9	10,000
	무명씨	4/9	10,000
	최영미	4/10	50,000
	강승훈	4/10	5,000
	강승민	4/10	5,000
기로스승	무명씨	4/10	10,000
	해정	3/23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3/26	50,000
	조경탁	4/12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4/12	50,000
	변순개	4/10	10,000
어린이집정각사	안한수	4/11	10,000
	손재순	3/23	50,000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김양숙	4/12	10,000
	무명씨	4/11	10,000
사원명무기명	박필남	4/13	10,000
	김갑선	4/19	10,000

칼럼 지혜의 눈

지상 설법

# 말보다 실천으로 행동하는 수행자가 되자

먼저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  
보살은 다른 사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의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며,  
자기 마음의 체성이 곧  
일체 중생의 마음의 체성이니

자기 마음의 티끌을 버리면  
일체 중생의 마음의 티끌을 버리는 것이요  
자기 마음의 탐욕을 일체 중생의 탐욕을  
버리는 것이요,  
자기 마음의 어리석음을 버리면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일체지(一切智)를 깨달은  
사람이라 한다(대장엄법보경)  
- 『불교총전』



수계사 주교 현일 정사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데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은 이리 하면서 저리 다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말과 행동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경계하는 것으로, 『법구비유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천 마디 말과 경전을 많이 배운다고 한들, 그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옳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올바른 수행자이다.**

자신의 불공 이력을 뽐내듯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불공한지 몇 십 년 수행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으며 마치 크게 깨달은 수행자처럼 거만하게 말을 하는 사람 들이지요.

하지만 말로 뽐내는 사람치고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언행불일치입니다. 말로는 좋은 이야기길 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올바른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면서 실천하는 것도 한올바르게 한다면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이 거리를 멀리 두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제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르다든지, 어제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 오늘은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언행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행을 조심하며, 자신이 말과 행동을 달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검열하고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사람이 빨리 늙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요.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몸에 화가 배어있다보니,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이내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수행자는 화를 참고 화가 날 때 그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 화에 빠져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늘 웃는 얼굴을 보여 주기위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웃는 낯에 침 뱉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요.

두 번째로는 참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적으로 들다보면 참견이 되고, 참견을 당하는 사람에겐 오지랖일 뿐입니다. 오히려 참견하지 않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며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 좋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방당한 사람은 타인을 비방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를 칭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장점은 칭찬으로 격려하고, 상대의 단점은 보완으로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칭찬하면 자신의 허물도 소멸되고 상대의 허물도 소멸됩니다. 상대의 허물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겠지요.

정리하자면, 화를 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할 때 서로 좋은 인연을 맺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참견이나 간섭을 삼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역시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로 대한다면 결국 상대방의 허물도 소멸되고 나의 허물도 소멸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사람(人)이면 사람(人)이나 사람(人)으로서 사람(人)다운 행동을 해야 비로써 사람(人)이지

저는 늘 사람 인(人)자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 새겨둡니다. 어떤 의미나 하면, 사람이면 사람다운 행동을 해

야 사람인 것입니다. 이 논리를 모든 것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스승으로서 스승다운 행동을 해야 비로소 스승이며, 부모는 부모로서 부모다운 행동을 해야 비로소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식다운 행동을 해야 비로소 자식인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行)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행의 최고 목적은 결국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를 낼 것인지, 칭찬을 할 것인지는 결국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늘 그 말씀을 새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과오를 저지른 상태를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과오를 저질렀을 때는 사실대로 고해야 합니다.

흥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과오를 털어놓고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진흙 속에서도 울곧게 올라오는 연꽃처럼, 치우침이 없는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용맹정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 황사와 미세먼지를 보는 눈(眼)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일은 인간 생명을 관리하는 일”**  
**“각자가 진리의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주위도 밝혀 나가기를”**

황사나 미세먼지다 해서 참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한데 엉켜 뿌연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 보통 시민들도 그날그날 상황을 파악하고 마스크를 쓰는 일 외에 다른 수가 없는 듯하다.

마스크 값도 만만치 않으니 하찮은 존재로 여겨온 먼지들의 반란에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황사나 미세먼지 자체에 무슨 죄가 있겠나. 환경이 악화되는 데는 우리 인간들의 무지도 한 몫 하는 것 아닌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연을 무한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근대문명의 혜택을 입었고 때가 되어 그 폐해를 고스란히 되받기 시작한 것이니 말이다.

인간이 지금처럼 편리한 생활을 계속 영위하려 하면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면 몰라도 어느 정도 원인을 알게 된 이상 그런 길을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사이에 다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인간은 우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공기며 물이며 햇빛이며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미세먼지도 우주의 일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주위 환경 악화로 인간이 적응하기 어려워질 때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폐 따위 기관에 손상을 입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일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일은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 일이다.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 역시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우주의 중심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온 과보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그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질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도 돌보며 우주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어쩌면 미세먼지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나하나의 작은 존재지만 여럿이 뭉쳐서 농도가 짙어지면 괴력을 발휘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전체 우주 차원에서 보면 개개인은 미미한 존재일지 몰라도 상호 협력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별 것 아니라고 하면 인간도 별 것 아니고 미세먼지가 대단한 것이라고 하면 인간도 대단한 존재가 된다. 미세먼지든 인간 스스로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관건이다. 일체유심조라고 인간이 선의로 뭉치면 선한 결과가 도출되고 악의로 뭉치면 악한 결과가 나오니 이왕이면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불·법·승 삼보(三寶)는 바른 길을 제시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의 공동체다. 삼보를 따르는 공동체가 얼마나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느냐에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빠리사(parisa)’는 몇 사람이든 빙 둘러 앉아 부처님 법을 공부하며 실천에 옮기는 모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이 이끌어 나갈 때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 부처님께서 오신 봉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진리의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주위도 밝혀 나가기를 소망한다.

김봉래(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通佛敎)적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구입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종단협,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위한 기원 법회 봉행

## 文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사진제공:한국불교종단협)

한국불교종단협(총회장:인선 정사)은 4월 27일 남부총회 본부에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기원법회에는 종단협회장 설정스님, 불교총지종 총무원장 인선 정사,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장 회성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원법회에는 총지종 승직자와 서울 경인 신정회 회장단을 포함한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종단협의회 부회장이며 불교총지종 총무원장 인선 정사

는 육법공양에 참석하여 백미를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다.

종단협의회 회장 설정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한국불교의 전국 사찰은 일주일간 조석으로 축원하며 당일 사시 예불 시간에 33타종을 거행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와 위신력으로 밝은 미래가 환하게 열리기를 기원하는 타종식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

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불교의 신념중 화쟁의 정신이 한반도에 실현되어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 간절한 원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38년 전 군부독재 시절 신군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종교의 성역을 침탈하여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언급하며 사과했다.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련 위원장은 축전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하신 불자 여러분들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전체 불교사찰을 대표하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남북 전체 불자들에게 따뜻한 동포적 인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뒤편에 위치한 ‘석불좌상’이 서울시 유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바 있는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명칭 변경 약속을 지켰다며 공연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강동화 기자

# 수현 정사, 제139회 중앙종의회 개최

## 의제법령 공포 결의, 혼란스럽던 복식 정비



불교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는 제139회 중앙종의회를 통리원에서 개최해 안건심의를 하였다.

의장의 개최불사와 인사말에 이어 지난 2월 27일부터 양일간 시행한 통

리원 사무지도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종의회는 총기 46년도 결산안을 심의 가결하고 임기 만료된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로 금강륜 전수(성화사 주교), 법우 정사(유임, 실지사 주교)가 추

천되었다. 재단 감사는 덕광(유임, 실지사 주교) 정사가 선출되었다. 지진피해를 본 선림사(경북 포항시 흥해읍)는 건축물을 멸실하고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가옥으로 서원당을 꾸미기로 결의하였다. 종의회에서는 상정된 의제법을 심의하여 시행령으로 공포하기로 결의하였다. 의제법령은 종단 승직자의 가사와 법의, 정복인 한복과 양복을 규정하고 있다. 의제법령의 마련으로 그동안 혼란스럽던 복식을 정비하게 되었다. 총지종 교사에는 총기30년(2001) 12월 26일 ‘가사 법의 봉대가지 불사’를 봉행한 이후 17년 만에 의제법령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 종령 법공 대종사 제140회 승단총회 개최

## “승단총회를 통해 토론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불교총지종 종령 법공 대종사는 종단 최고의결기관인 승단총회를 개최했다.

제140회 승단총회는 총기 47년 4월 18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현직 승직자와 기로 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법공 종령은 개회사에서 “승단총회가 본 취지대로 운영되고 승단총회를 통해 토론문화가 확산되어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승단총회에서 건의사항이나 의견

개진이 왕성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승단총회에서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종단현안 설명과 중앙종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 인선 정사는 법성사 신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정각사 특락전 조성 현안도 설명하였다.

조성계획중인 정각사 특락전은 명절 제사와 기제사 불공의 필요성에 따라 조성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교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정각사 내 바라밀지역 아동센터의 장기 인원 미달

로 인한 폐원 소식을 전하였다. 중앙종의회 의원으로 남혜(삼밀사 주교) 정사가 선출되었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연등회의 내력과 성격

## “불교적 전통에서 시작, 우리 민족의 일상에 뿌리 내린 고유문화”



연등회(燃燈會)는 등불을 밝히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불교적 성격의 행사다. 신라 진흥(眞興, 534-576) 왕대에 시작되어 고려에서는 국가적 행사로 자리 잡은 불교행사로 불교가 토착 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의례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 초기 경전에 연등 공양에 관한 기록들이 발견되는 점으로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전 시기부터 연등회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석가탄신일인 4월 8일에 축하행사로 행상공양(行像供養)을 거행했는데, 연등회는 그날 밤의 중요한 행사였다. 본래 연등은 연등에 불을 켜 놓음으로써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어두운 중생세계를 밝게 비추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을 기리며, 선업(善業)을 쌓고자 하는 보시의 한 방법이 었다.

고려 태조가 《훈요십조》의 제6

조에서 후대 왕들에게 계속 팔관회와 연등회를 잘 받들어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태조는 여기서 연등회를 ‘불(佛)을 섬기는’ 행사라 하였다. 집집마다 등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던 행사로 자리 잡은 고려는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부처님오신날에 연등회를 시행했고, 고종 32년(1245)에도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기악과 연희를 벌였다.

고려는 처음에는 매년 1월 15일 상원일(上月日)에 연등행사를 가지던 것을 성종(成宗, 981-997)대에는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로 폐지했다가 현종 원년(1010)에 재개하였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다가 돌아오던 중 청주(淸州)의 별궁에서 2월 15일에 열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 날짜로 바뀌었다. 이후에는 나라의 형편에 따라 1월 15일, 혹은 2월 15일에 열렸다. 『고려사』 열전

에는 국가 중심의 상원일(2월) 연등회 이외에 사월 초파일에 시행하는 연등회도 있었다. 사월 초파일의 연등회는 고려 중기부터 문헌에 나타난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전부터 이미 민간에서는 사월 초파일 연등이 시행되었을 것이다.

이후 조선의 연등풍속은 『동국세시기』(184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는 사월 초파일 연등에 대한 내용만 있고, 상원일(2월) 연등회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상원연등의 풍속이 사라져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연등회는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지금의 연등회 행사로 본격화 되었다.

대표적 서울연등축제인 연등회는 집등식을 시작으로 연등행렬과 더불어 전통등 전시회, 어울림마당, 회향한마당, 전통문화마당 등 문화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축제로 발전했다. 문화재청은 2018년 4월 2일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연등회는 불교적 전통에서 시작되었으나 1,30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일상 깊숙이 뿌리 내린 우리의 고유문화로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세상 밝히기를 기원하며 불자들은 등을 밝히고 있다.

# 동해중학교 이사회 개최

## 2017년도 법인회계 결산 및 2018년도 1차 추경 심의 가결

학교법인 관음학사(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는 법인실에서 제178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학교법인 이사장)는 이사회 개회 선언을 하고 2017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 결과 보고 및 결산을 심의 가결

하였다. 이사회는 2018년도 1차 추경 금액 3억 8천만원을 심의하고 가결하였다.

추경 주요 사업으로는 1식 3,700원인 전교생 무상급 식비 지원금 1억 4천만원과 각종 목적사업비 1억9천만원의 사업 승인하였다.

특히 추경 사업비중 학생 상담지도비 1천6백만원을 사업승인 하므로 휴대용 사용 지도, 위클래스 상담실 운영, 학생 등·하교시 안전지도 및 학교 지키미, 푸른꿈 교실과 상담실 운영, 금연 홍보 및 인성검사,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사업 등에 배정되었다.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통리원장 인선	교구장 법경	교구장 정인화	교구장 안성	교구장 지정
총무부장 우인	관성사 주교 인선	관음사 주교 정인화	개천사 주교 우인	만보사 주교 승원
재무부장 원당	밀인사 주교 법등	단향사 주교 지홍	건화사 주교 법상	법황사 주교 서령
사회부장 지정	법천사 주교 법경	덕화사 주교 시정	국광사 주교 혜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교정부장 법일	벽룡사 주교 법일	밀행사 주교 도현	단음사 주교 수현	혜정사 주교 진일심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시법사 주교 서강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림사 주교 혜음	흥국사 주교 지정
사감원장 안성	실지사 주교 법우	삼밀사 주교 남혜	수계사 주교 현일	백월사 주교 승원
원의원	정심사 주교 화령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안성	
전당건설위원회	지인사 주교 승효재	실보사 주교 덕광	승천사 주교 원봉	
총지종유지재단	총지사 주교 원당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행원심	
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법장원		자석사 주교 도우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각사 주교 법상인		
밀교연구소장 법경		화음사 주교 록경		
학교법인 동해중학교		동해사 주교 법선		

불교총지종은  
실천밀교를 흥포하고 있습니다.

동해중 소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임원단 선출

학교의 발전과 학교구성원간의 소통 역할 기대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는 4월 12일 학교의 행정적 지원 및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협조를 위해 학부모로서의 역할 충실을 위한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단을 구성하였다.

이번 임원단 조직은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발적 조직인 만큼 앞으로 동해중학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그 역할이 기대가 된다.

오늘날 학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성원과 협조 및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학부모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효율적 변화와 보편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 제고, 전문성 증진, 교육경쟁력 확보,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모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발하는 학부모 조직인 만큼 학교 구성원과 소통과 공감 및 자율적 학교자치 문화를 위해 많은 관심

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장 정미경(3년 황보석현母), 부위원장 장보금(3년 윤호진母)님이 선출되었다. 학부모위원에 이형주(2년 김지원母), 조진화(2년 신희재母), 백금산(2년 이우주母), 이윤정(1년 권재현母), 추금량(1년 박정우, 선우母)님이 선출되었다.

교원위원은 당연직으로 학교장을 비롯 박미경, 김진화 선생님이 선출되었다. 학부모회 임원단은 회장에 오윤경(3년 백어진母), 감사에 강주영(3년 배성우 母), 간사에 강경화(3년 고태일母), 3학년 부회장에 장보금(3년 윤호진母), 2학년 부회장에 장경숙(2년 장지현母), 1학년 부회장에 이영미(1년 홍진솔母)님이 선임되었다.

탁상달 교장선생님

News Finder 손 안에 보이는 세상

물가상승률 반영에 국민연금 수령액 11년새 32% 증가

국민연금이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월평균 6천870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지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6만1천740원에서 월평균 6천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8천61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보험상품과는 달리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년 4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지급자가 받는 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장치로 국민연금수령액은 지난 11년새 32%증가했다. 예를 들어 올해 71세인 A씨는 60

세가 되던 2007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탔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당시 A씨가 받았던 노령연금은 월 46만600원이었다. 그러던 A씨가 2018년 현재 받는 노령연금은 월 60만8천원으로, 꾸준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수령액이 11년 동안 1.32배로 증가한 것이다.

만약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연금인상 시기를 내년부터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남오 기자

살찐 사람, 심방세동 위험 40% ↑

비만한 사람은 심장박동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메디컬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의과대학 심장 전문의 앤드루 포이 박사 연구팀이 절반은 비만이고 절반은 비만이 아닌 남녀 6만7천278명(평균 연령 43.8세)을 대상으로 8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비만 그룹이 대조군보다 심방세동 발생률이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 그룹에서는 2.7%가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대조군은 1.8%였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이따금 매우 빠른 속도로 수축, 가늘게 떠는 상태가 되면서 심박수가 1분에 140회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심장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잦을수록 혈전이 형성돼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심계항진), 호흡곤란, 무력감의 형태로 나

타난다. 포이 박사는 이는 비만이 심장에 가하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방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심방세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만 그룹에서는 심방 조직의 섬유화(fibrosis), 압력 상승, 지방 침윤(fatty infiltration)이 나타난 사람이 대조군보다 많았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심방세동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비만 그룹은 이 밖에 고혈압 위험도 대조군보다 45% 높았다. 당뇨병 발병률도 51% 많았다.

포이 박사는 비만한 사람이 심방세동이 나타났을 경우엔 무엇보다 체중을 줄이는 것이 심방세동 관리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심장병 학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박민정 기자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 침탈 아픔을 딛고 화합과 상생의 길 모색할 때

정부와 불교계 머리 맞대고 진상규명부터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신군부에 의한 한국불교 침탈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을 앞두고 열린 불교계 초청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에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17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각 종단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회향과 한반도 평화 및 국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불교는 군부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종교의 성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0.27법난이 그것이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불교계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어, 한국 불교가 더욱 화합하고 융성하길 기원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사과의 표명이었다. 정부 차원으로는 1988년 12월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의 담화문 이후 꼭 30년 만이다. 10.27 법난이 일어나지는 무려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받아낸 대통령의 사과다.

1980년 10월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불교정화'라는 명분으로 3만2000여 명의 군경 합동병력을 투입해 전국 5700여 개 사찰서 약 1700여 스님들을 무단으로 연행해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불교를 짓밟았다.

이는 공권력이 특정종교를 상대로 벌인 문지마 범죄이자,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불교탄압이다.

이후 불교계의 끈질긴 요청과 제기로 2008년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난 가해자의 주역인 국방부가 주무부서로 관여하는 등 논란이 많았고, 역대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10.27 법난에 대한 많은 관심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에는 선거전 공약에 그치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조계종은 문 대통령의 10.27법난 공

식 유감 표명에 대해 즉각 환영의 분위기를 전했다. 조계종은 4월 18일 대변인인 기획실장 금산 스님 명의로 낸 '문재인 대통령의 10·27법난 공식 사과에 대한 환영 논평'을 통해 "조계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난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불교계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은 법난의 아픈 상처를 딛고 국민의 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현재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법난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조계종 총무부 장 정우스님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만큼 정부 주도의 진상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상 규명은 커녕, 피해자 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다. 정확히 말하면 피해를 입은 스님들에 대한 의료비 지급 정도의 보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불행하고 치욕적인 역사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그레아 역사적 교훈을 배우며 되풀이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법난은 누가 지지했으며, 왜 일어났는지 등 진상규명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 대통령의 큰 뜻을 헤아려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대통령 말씀의 무게에 걸맞은 신속한 일처리에 팔을 걷어 부쳐야 할 것이다.

10.27 법난 당시 서빙고로 끌려가 무차별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사회적으로는 관세 인문들의 왜곡 보도 등으로 인해 불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불교와 스님들의 명예가 훼손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상규명부터 시작하자.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 드디어!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습니다

## 선택진료비란?

법에 따라 시행된 의료기관이 지정함 선택진료(특진) 의사에게 진료시,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2018년 3월 27일부터 선택진료비 폐지!!**

##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된 선택의사 비율 및 진료비용

연도	선택의사 비율 (%)	선택진료비 비중 (%)
2014년	80%	35%
2015년	67%	80% → 67%
2016년	33.4%	67% → 33.4%
2018년	0%	완전 폐지



총지사 주교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12

# 『대승장엄보왕경』의 육도중생의 구제자 관자재보살(1)

밀교에서는 관자재보살을 법신 대일 여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자비의 방편으로 보살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관자재보살은 성불을 구하는 구도자로서의 보살이 아니라 법신의 응신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이러한 응신사상이 관음신앙으로 나타나서 관자재보살은 육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로 몸을 나누는데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의 구도 현신하는 다양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관자재보살은 이러한 유정들을 구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리도를 증득하고, 유정의 부류에 따라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느니라. 마땅히 부처의 몸으로 득도 시켜야 할 자에게는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마땅히 보살의 몸, 연각의 몸 - 중략- 부모의 몸으로 득도시켜야 할 자에게는 곧 부모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선남자에 관자재보살마하살은 그 유정들에 대해 마땅히 득도 시켜야 할 자들에 따라서 이와 같이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모든 유정들을 구제하여 모두가 마땅히 여래의 열반 경지를 증득하도록 하느니라.

이처럼 관자재보살이 20신으로 현신

하여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설하고 있으며,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33응신의 모습을 나누어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능엄경』 「이근원통장」에서는 세존이시여, 저는 관세음여래께 공양하고 그 여래께서 이리주신 환과 같은 문훈문수 금강삼매를 입사와 불어래와 더불어 자력이 동일한 고로 체 몸이 32응신을 이루어 여러 국토에 들어가나이다. 라고 하여 32응신의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각각의 경전에서 응신의 숫자는 조금씩 다르게 설하고 있지만 응신의 의미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다양한 응신의 모습은 관자재보살의 중생을 대비심으로 구원하기 위한 서원과 무애자재한 중생구제의 구원력이 광대무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육도에 몸을 나누어서 고통받는 육도중생을 구도하는 모습을 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관자재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육관음의 6가지 덕상의 모습을 갖추어서 중생과 상응한 몸을 나타내어 구제하여 제도하는 대비행의 실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육도구제를 육관음의 교화할 동으로 보던 전통적 신앙을 육자대명 다라니를 육관음으로 상징하여 육자대명다라니에 모든 관음보살을 수용하고 대표하는 보살로서 신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이러한 관자재보살의 구도의 모습을 세존께서 제계장보살에게 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옥중생의 구제자 성관자재보살

『대승장엄보왕경』에 대아비지옥으로부터 크고 밝은 빛이 솟구치는 상서로운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묻는 제계장보살에게 “이 크고 밝은 빛은 성관자재보살마하살이 대아비지옥 속에 들어가서 모든 큰 고뇌에 시달리는 여러 중생들을 구제하여 제도코자 하기 때문이라.”라고 설하면서, 성관자재보살이 지옥에 들어가 고통 받는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이어서, 이때, 관자재보살마하살이 “그 지옥 가운데 들어가서 그 끓는 가마솥을 파괴하니, 맹렬한 불길이 모두 꺼지고 그렇게 커다랗던 불구멍이가

보배로 된 연못으로 변하였으며, 못의 연꽃의 크기는 수레바퀴와 같았다.”라고 관자재보살이 대위신력을 나타내어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아비지옥이 청량한 곳으로 변하게 한다.

## ② 아귀중생의 구제자 천수천안관자재보살

이어서 관자재보살은 대아비지옥에서 나와서 아귀대성에 들어간다.

이 때, 관자재보살마하살이 아귀대성에 이르자, 그 성은 치열하게 타오르던 업화가 모두 꺼져 시원하게 되었다. 라면서 관자재보살이 아귀도를 구도하시는 위신력을 설한다.

이 때에 관자재보살마하살이 대비심을 일으켜, 열손가락 끝에서 각각 냇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 중략 - 이 모든 아귀들이 그 물 속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며, 이 물을 마실 때 목구멍이 넓어지고 커져서 몸의 형상이 원만하여졌느니라.

또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얻어 모두 다 배불리 만족하게 먹었느니라. 하고, 이 때에 아귀들은 이익과 안락을 얻었으며, 문득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모두 보살이 되고 이름을 수의구라 하였다. 라고 하여 아귀도를 구제하여 모두 해탈케 하였다.



건화사 주교 범상정사  
연명의료 4

# 연명의료중단의 의미

## 연명의료중단이란 무엇인가?

치료적 행위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처치를 이용하여 단지 생명의 과정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연명의료는 특수연명의료와 일반연명의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특수연명의료는 생명유지를 위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기술과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치료이다.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혈, 항암제 투여, 장기이식,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심폐소생술에는 심장마사지, 제세동적용, 강심제나 승압제 투여, 인공호흡 등이 포함된다. 일반연명의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료지식, 기술, 특수장치가 필요 없는 치료를 말한다.

그 예로 관을 이용한 영양공급, 산소공급, 수분, 체온유지, 배뇨와 배변 도움, 진통제 투여, 일차 항생제 투여, 욕창 예방 등이 있다.

##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란?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 즉 임종기(臨終期)에 있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의미하며 지속적인 식물상태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말기에 가까운 상태이면 포함한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정의는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장치나 과다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공통된 요소로 한다.

## 연명의료란?

중병에 걸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심

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으며, 회복할 가능성이 없이 단지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연명의료중단과 비슷한 개념으로 안락사라는 것이 있다. 안락사 또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이나 신체 한 부분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환자의 요청에 의해 약물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 및 가족의 요청에 의해 행해지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생명유지가 필요한 영양이나 약물치료를 중단하거나 의료 보조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이다.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의료중단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이나 약물 치료 행위를 중단한다는 관점에서 비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의료중단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까지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 한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에서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수단,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행해지는 수단과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써 행해져 왔기 때문에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에 대한 동의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에 수용하는 쪽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연명의료중단도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벽룡사 주교 범일정사  
한국 불교사 4

# 고려 과학과 불심의 집대성 팔만대장경(上)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은 국보 제32호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국보 제52호인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은 2013.12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려대장경은 1011년 제작하기 시작하여 76년만인 1087년에 완성된 대장경을 조조대장경이라 한다. 대구 부인사(符仁寺)에 보관했던 『조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 고종19년(1232)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자 당시의 집권자인 최우(崔瑒) 등을 중심으로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251년 9월 25일에 완성을 본다. 이규보(李奎報)는 고종24년(1237)에 작성한 <대장각판문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서 ‘몽고의 침입을 부처님의 위신력(佛力)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대장경판 판각을 하게 되었음’을 부처님 앞에 고하고 있다. 즉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려는 민족적인 염원에서 국력을 기울여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팔만대장경은 1236년 새로 제작에 들어가 1251년 완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대장경판은 고려시대에 판각되었기 때문에 ‘고려대장경판’이라고 하며 매수가 8만여 판에 달하고 8만 4천 번뇌에 대치하는 8만 4천 법문을 수록 하였기 때문에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름은 재조대장경이다.

대장경판은 성격상 정장과 부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장은 『대장목록大藏目錄』에 수록되어 있는 경을 말하고, 부장은 『대장목록』에 수록되지 못한 『증경록宗鏡錄』 등 4종을 말한다. 정장(正藏)은 대장도감과 분사대

장도감에서 판각한 1,497종 6,558권의 경을 말하며, 부장(副藏)은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한 4종 150권이 있다. 팔만대장경은 1251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판은 8만 1,258판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면 판들을 차곡차곡 쌓았을 때 높이가 약 3.2km로 백두산(2,744km)보다 높다. 총 무게는 280톤에 달한다. 하지만 대장경이 유명한 이유는 단지 양 때문이 아니다. 목판 하나하나가 마치 숙달된 한 사람이 모든 경판을 새긴 것처럼 균일한 판각수준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지금까지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수와 관련하여 1915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진 1천5백12종, 6천8백19권 8만1천258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가장 공신력있는 수치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 태조실록에는 서울 지원사에 봉안된 대장

경판을 해인사로 이안할때의 경판 수를 8만6천6백86매로 밝히고 있어 일제 때의 조사보다 무려 5천4백28매나 많은 것으로 전해 오고 있었다. 2000년부터 10여년간 ‘팔만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며 경판 수를 조사한 결과 일제강점기인 1915년 집계보다 94장이 더 많은 8만 1352장으로 파악됐다.

습기에 뒤틀리거나 썩기 쉬운 목재로 만들어졌음에도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 깨끗하게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재목(材木) 선정과 곳곳에서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있다.

선정된 목재를 경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짧게는 30년 길게는 40-50년씩 자란 나무 중 굵기가 40cm 이상으로 곧고 웅이가 없는 산뽕나무, 들배나무 등 10여 종의 나무가 선택되었다.

## 밀교물



▲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보물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高敞禪雲寺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로 250-0 (아산면, 대웅보전) 시 대: 조선시대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형태는 넓고 당당한 어깨, 긴 허리, 넓고 낮은 무릎으로 인하여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갖춘 대형 소조상들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상 등 17세기 전반기 각지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조성된다. 대형의 소조불상의 조성 목적은 이전 시대와 달리 새로워진 불교계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고, 전란으로 소실된 불상을 빠른 시간 내에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삼불상은 양대 전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과 당시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좌의 밑면에 기록한 묵서명에서 불상의 조성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라는 삼불상의 존명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비로자나 삼불상의 도상연구에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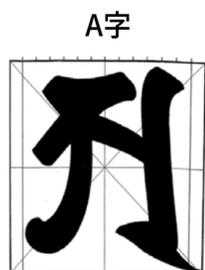
자료제공=문화재청

## 그때 그 시절 4월(총기 10년 ~20년)

- 1. 정각사 미니버스 구입  
총기10년(1981) 5월 12일  
폭주하는 부산교구 사무와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사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아세아 미니버스 1대를 구입하여 정각사에 배치했다.
- 2. 덕화사 헌공불사  
총기11년(1982) 5월 28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325의2 덕화사 서원당 헌공불사를 교도대중과 승단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불사를 마쳤다.
- 3. 제1차 비상중단위원회  
총기18년(1989) 5월 9일.  
대구 개천사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 7명 외 참관인 3인 참석 - 5월 2일 제2차 비상중단위원회 위원 전원이 대전 만보사 신축현장을 답사하고 본원에서 제2차 회합.
- 4.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총기20년(1991) 5월 18일  
불기 2535년 석가탄신일 봉축 법회를 여의도 광장에 참석하여 봉축 법회 및 제등행렬을 하였다.



## 범자진언



A字

A字 쓰는 순서



경전예문(신묘장구대다라니)

Namah ary-avalokitesvaraya

나마하 아리야 왈로키테슈와-랴야 (범음) 나막 알야 바로키테 세바라야 (한자음)

- 나막은 나모와 같은 글자로 ‘귀의하다’는 뜻이다.
- 위 글 뜻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이다.



사/원/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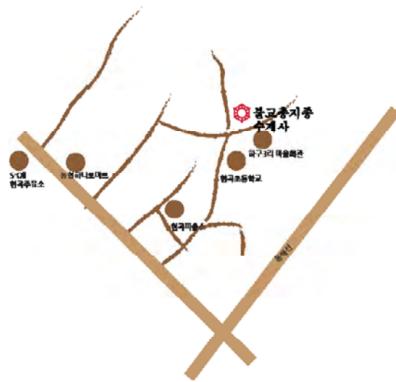
#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곳, 수계사



▲ 사진 = ① 수계사 ② 주교 현일 정사 ③ 자성일 법회 ④ 부처님오신날 연등

##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을 닦는 수계사(修戒寺)

‘수계하다’라는 동사가 있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개중 하나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을 받다’이다. 한적한 시골 마을, 경북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에 이 계율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어나가는 사원인 수계사가 있다. 이제는 잘 보기 힘든 원상이 수계사의 옥상에 우뚝 솟아 위엄을 뽐낸다.



▲ 수계사 약도

수계사 오시는 길:

▶ 버스 : 하구3리. 현곡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현곡초등학교 방향 374m 이동 (일반) 230,231,234,31

수계사는 근처까지 오가는 교통편이 없어 현일 정사가 직접 기사역할까지 하고 있다. 공식 불공이 시작하기 한 시간 전 현일 정사는 교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공식 시간이 시작하기 10분 전, 사원 앞으로 오래된 승합차가 들어오고 차에서 보살님들이 내린다. 굳이 따지면 자성일에 남달라 보이다 두 시간 더 부처님오신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현일 정사는 모든 교도들을 태우러 가는 시간부터 이미 공식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모든 보살님들과 각자님들이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그제야 자성일 공식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가끔은 귀찮을 법도 한데 운전과 마치고 돌아오는 현일 정사의 얼굴에는 전혀 부정적인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다.

### 벚꽃이 만발하는 경주

매년 이 시기쯤 경주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경주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벚꽃 축제가 열린다. 벚꽃이 유명한 대표적인 명소로는 대릉원, 김유신 장군묘, 보문 단지 등이 있다. 대릉원에서 경주향교로 향하는 길,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이야기 길을 품은 월정교가 있다. 신라 왕족들의 터전 월성과 남산을 잇던 다리이기도 하다. 경주향교 안에 있는 우물은 요석공주 때부터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아들, 이두를 집대성한 설총이 태어났다.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개막 공연, 버스킹, 운동회 등을 진행하며, 신라복입기, 소원지 달기, 화전놀이, 타종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다. 경주 벚꽃은 경주 시내에 만개한 후 보문호를 지나 불국사 겹벚꽃으로 이어진다. 겹벚꽃은 흔히 보는 벚꽃과 달리 더 선명한 분홍빛을 띠고 꽃잎이 두터워 아름답다.

### 주인의식이 투철한 수계사의 교도들

수계사의 사원당은 작고 아담하다. 그 작은 사원당을 교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가득 채운다. 하지만 교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사원보다 우렁차고 크다. 조용한 마을에 사원 밖으로 염송하는 소리가 울린다. 마을 전체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울린다. 다들 있는 힘껏 큰 목소리로 염송을 한다. 사원에 대한 교도들의 애정은 사원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 교도들 모두가 자립심이 강하며 동시에 수계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투철하다. 실제로 수계사 사원당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소품들은 대부분 보살님들의 자발적인 보시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철엔 추위를 대비한 무릎 담요를, 여름철엔 더위를 막아줄 에어컨이 교도들 모두가 수계사를 열거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보여준다. 실제로 모든 보살님들이 에어컨을 볼 때는 에어컨을 보시해주신 각자님에게 감사사를 느끼고, 무릎 담요를 덮을 때마다 담요를 보시해주신 보살님에게 감사사를 느낀다고 전했다.

## 염송 소리, 사바의 세계에 부처님 말씀으로 울려 퍼지다



▲ 사진 = ⑤ 부처님오신날 풍등 ⑥ 불전에 헌향 ⑦ 개인불공

### 수계사가 초파일을 즐기는 방법

작년 수계사의 초파일은 기존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일 정사는 작년 초파일 행사가 끝난 후,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풍등을 날려보았다. 내년 초파일에 이벤트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풍등을 아무데서나 날릴 수 없다. 현일 정사는 고민 끝에 해결책을 얻었다. 풍등에 연처럼 실을 달아서 날렸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띄운 것이다. 고체연료가 다 닳아 없어지면 실을 당겨 쉽게 회수할 수 있다. 올해 초파

일에는 보살님들과 다 함께 풍등에 소원을 적고 날려볼 예정이다.

요즘 현일 정사는 악기 연주가 가능한 교도를 찾느라 바쁘다. 초파일에 또 하나의 행사가 간단한 합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일 정사는 취미로 미니하프를 다룬다. 현재 피아노, 하모니카, 기타, 색소폰을 연주하는 각자님들을 섭외하였고 하니 기대하여도 좋을 듯하다.

### 수계사의 사람들

수계사의 신정희 회장인 정옥순 회장은 올해

초 취임한 뜻내기 회장이다.

“입교한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몸이 참 안 좋았는데 부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시다. 안주화 전수님께서 저를 참 꼼꼼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스승님의 얼굴이 눈 감으면 선하게 그려집니다. 우리 수계사는 교도가 많은 편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합력이 뛰어나습니다. 또 아직 제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모든 보살님들과 정사님께 감사합니다.” 정옥순 회장은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취재의 모든 면에 적극적이였다.

“수계사의 가장 큰 자랑은 보살님들과 각자님들입니다. 마을과 절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들 순수합니다. 때 묻지 않음과 티 없이 맑은 분들에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교도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꽤나 늘었습니다. 저는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줄어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계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사원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다들 현재에 감사하며 마음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서원합니다.” 라고 현일 정사는 전했다.

취재=박성라

주교 : 현일 정사  
주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 3리 다경길 36-19 (하구리 1115)  
전화 : 054-745-5207



### 최남이 교도

##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얻은 능력

#### 불안한 마음 달래기 위해 입교

입교한지 50년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한으로 잡고 남편은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 육지에 있으면 좀 나올 텐데, 바다에 계신 것이라 생각하니 바람불고 비오고 할 때엔 너무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심란하며 무엇보다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 되었고,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교한 초기엔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어서, 가정집에 본존만 다라를 하나 걸어놓고 불공을 하곤 했습니다. 그 풍경이 꽤나 진기한 풍경이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경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입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알아서 염승을 외우며 염주를 돌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염주를 돌렸니다. 진언은 입에서 나올 뿐 마음을 울리지 못하였고 염주는 그저 손에서 의미 없이 구르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49일 불공이 끝나고 나자 저에게는 거짓말처럼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바다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저는 날씨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맑은 날엔 너무도 기분이 좋다가 바람이 조금 거세게 불거나, 소낙비라도 쏟아지는 날이면 남편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있는 곳의 날씨가 같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의 날이 흐려도 불안하고, 남편이 있는 곳의 날이 흐리면 더 불안했으니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날씨를 저의 능력 밖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무력감까지 찾아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

습니다. 저는 그저 무능력하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첫 불공을 마치자 거짓말처럼 날씨에 무대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았고, 흐린 날은 또 흐린 날대로 좋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 특유의 우울함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의 날씨가 좋지 않음을 알아도 남편이 편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 것이라 현재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평화를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직 남편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하며 저는 계속해서 정진하였습니다.

#### 타인에게 베풀면 돌아오는 인과

불공과 동시에 저에게 찾아온 특별한 변화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눈에 보이니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도 분들의 크고 작

은 병들을 불공으로 낫게 하였습니 다. 저를 찾아 다른 지역에서 먼 걸음으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대구의 병원에서 오신 분이였습니다. 그때 계시던 전수님께서 모셔오셨는데, 병원에서 당장이라도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분을 위해 밤낮 없이 불공을 하였고, 며칠 만에 혈색이 돌아오고 시간이 좀 더 흐르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돌아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매달려 불공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정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불공중인 정사님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호통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같이 불공하던 보살님들도 놀래고 전수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전수님께서서는 따로 집에서 저녁

에 보자고 하였고 그날 저녁 저는 사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김 없이 또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사님이 과거에 잘못 하신 일을 제 입으로 옮겨 되었습니다. 영식이 제 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을 한 후에, 정사님의 허리가 거짓말처럼 낫게 되었습니다.

#### 저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바친다는 마음으로 불공하였습니다.

이 능력이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남에게 크게 베풀지 못하고 산 인생이라 생각하였는데, 살면서 이토록 타인을 위해 고생하고 마음 쓸 경험은 쉽게 찾아오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지만 타인에게 베풀면 반드시 그대로 저에게 돌아오는

인과를 배우고 나니 더욱 더 기뻐했습니다.

3년 후 남편이 돌아오고 전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부처님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그렇게나 고쳐놓고 남편의 병을 한 번에 쉽게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열한 번을 하였고, 올해로 82세인데 정정하십니다. 수술 하는 내내 부처님에게 저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바친다는 마음으로 불공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었지만 꿈이 아닙니다. 모두 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남의 고통을 헤아리고 고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리라이팅 : 박설라



### 이상순 교도

## 어제보다 오늘을 더 깊은 불심으로 살리라

#### 모든일에 옴마니반메움

총지종에 입교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절을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순리를 따르는 것처럼 생겨났습니다. 평소 놀라운 일이나 기쁜 일 혹은 안 좋은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옴마니반메움이라는 진언을 되뇌었던 어머니의 모습과 결정적인 일이 닥쳤을 때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던 어머니의 태도와 늘 은화했던 표정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한 구석에 품은 채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불공에 대해 알아갈수

록,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듯한 마음이 들어 좋았습니다.

왜 일찍부터 어머니와 함께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지금이나마 같이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초반에는 읍내 안에 살림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돈벌이도 시원찮고 사람들이 복작거리는 게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 역시 고향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했기에 곧장 이사를 추진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불공도 좀 해보고, 천천히 진행을 하라고 하셨지만, 이사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당장이라도 사는 곳을 바꾸고 싶어 모든 절차와 불공을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본 집과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허술했지만 외양간도 있었기에 소도 한 마리 사서 그럴듯

한 시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새 집과 새 생활을 위해 가정 불공과 도량불공을 권했지만 이상하게도 당시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성일마다 절에 가는 데 그런 불공들이 꼭 필요할까 싶기도 했고, 좀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해서 하루 이를 미루다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 불공하는 지혜

새 집에서는 소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큰 아들이 소피이기도 하고, 집에서 소를 키우기도 하니 꿈에 소가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승님께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그때 그때 스승님이 해주신 조언을 받들어 불공을 드리면 꿈자리가 곧잘 편해졌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외양간에 불이 났습니다. 소가 춤지 않게 짚을 두둑하게 쌓아놓았는데 소가 혼자 움직거리다가 불이 있는 곳까지 짚이 옮겨 붙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놀란 마음에 불이 났다고 크게 소리도 한 번 제대로 못 지르고 속수무책으로 불타는 외양간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내에서 소방차가 오기는 했으나 길이 좁고 구불거리어서 소방 호스가 외양간까지 닿지 못해서 불을 잡는 데도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귀찮은 마음에 외면했던 스승님의 가정 불공, 도량 불공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꾸었던 소 꿈도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다는 깨달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

국 소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소보다 얻은 깨달음이 더 크기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화재를 겪으므로 저의 불심이 더 커지고 깊어졌으니 이보다 더 좋은 교훈이 어디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이 있지요. 저는 소를 잃고 불심을 키운 셈입니다. 그 후로는 일의 대소(大小)에 상관없이 뭐든 부처님께 물어보고, 불공을 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육남매를 키우면서 경제적 사정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불공을 하다 보니, 상가 하나에 식당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올만한 주변 환경이 아무 것도 갖추지지 않았는데 법문이 하도 좋게 나오고, 스승님도 해보라고 권해주셔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돌 즈음에 식

당 바로 앞에 농협이 생기고, 또 뜻밖의 예비군 훈련장도 생겨서 이래저래 식사를 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나면 꽤 편찮은 수입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하고 남은 것은 모두 육남매 교육 밑천으로 썼습니다. 어미가 힘들게 일해 번 돈이라는 걸 알아준 아이들 역시 열심히 제 갈 길을 가서, 이제는 모두 제 바그릇은 건사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아직도 소를 잃었을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의 생명을 불태운 셈이니 미안한 마음도 큼니다. 이제는, 소의 뉘끼가 더 열심히 정진하는, 어제보다 오늘을, 더 깊은 불심으로 사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리라이팅 : 황보정미



# S-OIL 현곡주유소

##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대표 **최병철**(수계사 교도)

주 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 화 : 054-745-5804, 054-745-3083  
핸드폰 : 010-2877-6137





왕불심초교리학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 유식은 모순의 한계를 넘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불안한 그 마음을 내 놓아라

중국에 선(禪)을 전한 이는 인도사람인 보리달마이다. 달마는 중국의 숭산(崇山) 소림사(少林寺)에 들어가 포교나 전도의 활동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 하였다.

9년 동안 벽만 보고 앉아 있어 면벽구년(面壁九年)이라는 말이 비롯되게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행자의 소문이란 것은 말없이 있어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마련이다. 훗날 달마의 법을 이어받은 혜가(慧可)가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다. 그 둘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를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혜가는 달마에게 “저는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는 “불안한 그 마음을 내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혜가는 그 마음을 내 보려고 하였으나 보일수가 없었다. “스승님 마음을 내보이고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는 지그시 혜가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노라”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것 역시 마음이다. 우리들이 접하는 매일 매일의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모두 내 마음 위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이며 마음을 떠나서는 자신에 대한 자각(自覺)도 있을 수 없으며 주위 사물에 대한 인식(認識),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마음을 명백히 하면 자기 주위의 사물이나 상황이 명백해 진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유식(唯識)의 참뜻이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구한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을 명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또한 마음이다. 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그것에 관하여 추리(推理)하고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다. 이를 해가는 <마음으로써 마음을 구한다.> 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 어떤 이가 자신의 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관찰해야 한다. 스스로가 관찰자도 되고, 또한 스스로가 관찰 대상이 되기도 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대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주제, 즉 자신이기 때문에 관찰자인 동시에 대상(對象)이 되기가 어렵다.

음악에 마음이 빠져 듣고 있다가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려고 하면 그 순간 음악에 빠져있는 상태는 없어진다. 자신이 음악에 빠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그 상태로 다시 갈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 상태를 스스로 계속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이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마음으로는 마음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마음을 구해야 한다면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유식은 그러한 모순을 능히 알면서도 다시 또 마음을 대상화하여 탐구해 간다. 대상화 한 것이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아니며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 하더라도 유식은 그러한 모순 위에서 마음의 탐구를 전개하면서 마음의 실체를 찾고자 하는 수행이다.

모순조차 거부할 수 없는 깨달음에 대한 갈망

붓다의 가르침인 무아(無我)와 무상(無常)의 존재론 위에 인식의 구조를 올려놓으며 실천론을 전개한 것이 유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가 시작되고 고타마 싯다르타의 뒤를 이은 수많은 수행자들은 오늘날까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라는 명제로부터 수행은 출발했다. 스스로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서 알아가는 것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의 첫걸음인 것이다.

비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커다란 모순임을 알고 있었지만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은 그 모순도 뛰어 넘어야 하는 한계로 인식 되어진 것이다.

유식불교는 모순조차도 거부 할 수 없는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갈망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 정각사,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원만 회향



4월 8일 정각사(주교 법상인)는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및 자녀 잘되기

를 서원하는 정진 불공을 원만 회향하였다. 이번 상반기불공(자녀불공) 49일 동안 어느 보살님은 경남 진례에서 정각사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용맹정진 불공한 결실을 보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외손자가 버클리대 컴퓨터 공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이다. 항상 불공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딸은 미국에서 어머니께 자녀 불공을 계속해 달라며 부처님께 의

지하고 있다.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에서도 상반기 49일 불공을 원만 회향하였다.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49일간 진호국가 불공과 함께 서원정진 불공을 시행해 오고 있다. 부국강병국대민안, 조국평화통일, 재난불생 산업발전을 교도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며 대한민국의 안녕과 가내 평안을 불공드린다.

통신원=한미옥

#### 수계사 방문, 교화발전 서원

4월 14일 승단 스승님들과 기로 스승님, 각 사원 신도들은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님을 예방하고 이후 수계사를 방문하여 수계사교화발전 서원했다.

수계사 주교 현일 정사는 “오늘 수계사를 방문해 주신 만보사, 백월사, 선림사 스승님들과 기로스승님, 각 사원 보살님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 통신원 연택채널을 통해 감사의 글을 올렸다.



#### 발레 ‘지젤’ 공연 다녀온 후

자석사 통신원 여순애



푸른색과 흰색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국립발레단의 ‘지젤’ 공연을 부산 하늘연극장에서 관람했다. 전문가도 아니고 발레에 문외한이지만 즐거워만 알고 갔을 뿐인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15년 전 불쇼이발레단 공연을 본 기억

은 있지만 로맨틱 발레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지젤’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멋있고 우아했다. 1막에서 춤을 좋아하는 시골 아가씨 지젤은 로이스라는 시골 청년으로 가 장한 귀족 알브레히트와 깊은 사랑에 빠지지만 사냥하러 온 공주가 약혼녀임을 알고는 미쳐서 춤을 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막에서 지젤은 남자의 배신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의 영혼을 말하는 ‘율리’가 된다. 율리들은 숲을 찾아 온 젊은이들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춤

을 추게 하는데 지젤은 무덤으로 찾아온 알브레히트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지켜 구원을 받게 한다. 나는 1막보다 2막이 더 인상적이었는데 발레리나들의 춤이 아이돌이 공연하는 걸듯 무뎠던 눈을 땔 수 없는 감동이었다. 발레 ‘지젤’은 우아한 선과 발레 드레스의 실루엣을 이용한 동작들 그리고 신비로운 색채의 조화로움이 발레의 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발레가 아직은 생소하지만 공연을 보면 커다란 감동이 생기니 한번쯤은 공연을 보시길 바란다.

축하합니다  
1. 건화사 허정욱(26·정현정 보살의 자) 군이 (주)한국종합기술 인사채용에 합격하였다. 허군은 동아대학교 토목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다.  
2. 4월 15일 대전불교총연합회는 재무청장으로 총지종 만보사 주교 승연 정사님을 선임되었습니다.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대종사

김홍군 작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잠원햇살 어린이집**

교육	배려, 자율, 창의
환경	안정적, 온화함
교사	사랑, 보람, 행복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8길 25(잠원동, 잠원래미안아파트) 문의전화 : 02)536-8725



절기 이야기

# 입하(立夏)

삼일사주교 남혜정사



입하는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로 양력으로 5월 6일 무렵이고 음력으로 4월에 들었으며, 태양의 황경이 45도에 이르렀을 때이다. 입하는 곡우와 소만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 백량(麥涼), 백추(麥秋)라고도 하며, '조여름'이란 뜻으로 맹하(孟夏), 초하(初夏), 괴하(槐夏), 유하(維夏)라고도 부른다.

입하(立夏)에 '들' '자'를 쓰지 않고 '설' '립'자를 쓴 뜻에 대해 내린 해석들이 다양하고 재미있다. "새 계절이 왔으므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라는 뜻"이라 보는가하면, "피동적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알아서 잘 선다는 뜻", "그 다음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 세월을 잠시 세우는 것", "이미 있는 것으로 이동함이 아니라 준비해온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뜻" 등이라 풀이한다. 실제 '립'자는 두 팔을 벌린 사람(大)이 땅(-)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따 만든 글자이기도 하다.

입하 무렵이면 여름기운이 조금씩 일어서는 시기라,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산과 들에는 신록이 일기 시작하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또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밭에는 참외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리고 법씨의 짝이 트고 보리이삭이 패기 시작한다. 현대인들이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이 시절에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스님들은 여름안거에 들어간다. 불(佛)과 승(僧)이 법(法)에 따라 움직이니 삼보의 힘찬 약동이 느껴지는 시기이다.

옛날 속담에 의하면, 입하 무렵에 한창 못 자리를 하므로 바람이 불면 씨나락이 물리게 되는데, 이때 못자리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입하 바람에 씨나락 물린다."는 말이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목화가 풍년 든다는 뜻으로 "입하 일진이 털 있는 짐승날이면 그해 목화가 풍년 든다."는 말도 있다. 입하가 다가오면 모심기가 시작되므로 농가에서는 들로 씨를 심고 나오라는 뜻으로 "입하물에 씨를 심고 나온다."라는 말도 있다. 재래종을 심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물을 잡으면, 근 한 달 동안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비료분의 손실이 많아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입하에 물 잡으면 보습에 개똥을 발라 같아도 안 된다."라는 말도 있다.

된다."라는 말도 있다.

입하에 이팝나무는 그 꽃이 피운다. 이팝나무는 본래 입하목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이팝나무가 되었다. 꽃이 피면 흰색의 꽃잎이 네 개로 길게 갈라져 흰 쌀밥 같이 보이는 꽃이 나무를 뒤덮어 위에서 보면 잎은 보이지 않고 하얀 꽃만 보인다. 그래서 '이팝'나무 또는 '쌀밥'나무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 귀룽나무, 층층나무, 산사나무 등의 하얀 꽃과 장미과의 황매화, 텅굴장미, 짙레꽃, 해당화, 모과나무 등의 꽃도 입하절기 중에 핀다.

입하차는 입하에 맞추어 판 찾임으로 만든 고급차이다. 보통 곡우 때 찾임을 따 만든 세작이 가장 비싼 고급차로 알려졌지만 「동다송」을 저술하는 등 다도를 정립하여 한국의 다성(茶聖)이라는 추앙을 받는 초의선사는 한국차의 경우 곡우보다 입하를 전후하여 판차가 더 좋다고 평가하였다.

초의선사는 「동다송」 제14송 주(註)에서 "중국의 「다서」에 의하면 찾임을 따는 시기가 중요하여 너무 일찍 잎을 따면 차가 완전하지 않고 때가 지나면 다신(茶神)이 흩어지기 때문에 곡우 전 5일이 가장 좋고 곡우 후 5일이 다음이며 이후 5일이 또 다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초선차의 경우 곡우 전후는 너무 이르고 입하 전후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설명하였다.

# 행복한 삶의 열쇠 인간관계의 중요성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선정택 교수

## 좋은 친구를 얻는 방법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GDP 순위로 세계 11위, 수출 순위로는 세계 제 7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산하 저개발국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네트워킹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수준을 조사한 <2018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이다. 1위는 핀란드였고, 노르웨이, 덴마크 등 순으로 북유럽의 행복지수가 높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은 어떨까? Gallup에서 2016년 11월 만 19세 이상 1500명의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귀하는 본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매우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다'고 답변한 비율을 보면 19-29세에서는 58%, 30대가 54%, 40대가 51%, 50대가 45%, 60대가 39%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점차 낮아지는 후진국 형태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영여권 국가에서는 나이에 따른 행복 지수가 45세에서 54세가 가장 낮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노년으로 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왜 이렇게 낮으며, 나이가 들수록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복 지수가 낮아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물질

적 요인, 건강,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종교, 봉사, 여가활동 및 성취수준 등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행복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사하라의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며 일에서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인 인간관계 유형이 강하고, 학교에서 성적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며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요즈음 학생은 물론 성인에게도 가장 강조되는 인성의 첫 번째 구성 요인이 사회성임에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 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매우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다'고 답변한 비율을 보면 19-29세에서는 58%, 30대가 54%, 40대가 51%, 50대가 45%, 60대가 39%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선 인간관계 기술의 핵심은 의사소통 능력이며,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경청), 공감해주는 것이다. 사람이 입은 하나이지만 귀가 둘인 것은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를 얻는 방법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격언을 마음속에 새겨보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①

## 매화꽃을 그리는 4가지 기법



덕광(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1. 백묘법(白描法)** 동양화에서 농담없이 먹의 선으로만 그리는 법으로 주로 국화나 매화의 흰꽃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2. 몰골법(沒骨法)** 윤곽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색이나 먹으로 그린 그림을 말하며,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뼈 없는 그림이라 해서 몰골법이라 한다. 먹의 농담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수묵화가 일반적인 기법이지만, 대나무, 국화, 잎사귀나 색이 있는 꽃을 그릴 때 사용한다.

**3. 구륵법(鉤勒法)** 백묘법과 몰골법을 같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형태의 윤곽을 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에 먹이나 색으로 채우는 기법이다. 산수화, 매화꽃, 국화꽃 등에 사용한다.

**4. 삼묵법(三墨法)** 붓 하나에 담묵, 중묵, 농묵을 표현하는 법으로 주로 대나무 줄기, 매화 꽃잎 등을 그릴 때 사용한다.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가경본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경본다라니(연분) 13.5x17x3cm ₩ 40,000	가경본다라니(검자) 14x19x1.5cm ₩ 10,000	요신다라니(차방형)금색 길이 18cm ₩ 20,000	요신다라니(차방형)은색 길이 18cm ₩ 20,000	요신다라니(차방형)엔믹 길이 18cm ₩ 20,000	요신다라니(장방형)금색 길이 30cm ₩ 50,000	요신다라니(장방형)은색 길이 30cm ₩ 50,000	요신다라니(장방형)엔믹 길이 30cm ₩ 50,000
요신다라니(차방형)엔믹 ₩ 3,900 (3x1.3cm)	보사수 100g ₩ 40,000	진보사수 100g ₩ 40,000	감보사수 100g ₩ 10,000					

**구입 문의 : 통리원 (02-552-1080) 또는 각 사원**

**불교총지종 통리원**



## 불교총지중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 법회 봉행

### 종단발전과 국가진호, 인류복지 증진, 중생해탈 진력



불교총지중(총리원장 인선 정사)은 4월 12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 총지사 서원당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와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제 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먼저 총지중 주요 스승들이 법의와 법통을 이운하고, 이어 법공 대종사가 입장해 본존에 참배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헌화와 훈화 가운데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와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제 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불의 대도를 온 천하에 펼치는 훌륭한 종단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총지중 기로 스승인 지성 정사는 법공 대종사의 수행이력을 “불교총지중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는 지난 1월 18일 제139회 승단총회에서 제12대 종령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1943년 경북 포항시 영일군 흥해읍에서 출생한 대종사는 총기 원년(1972년 1월 12일) 총지중에 입교 후 총기 12년(1983년 8월)에 통리원 및 총지사 근무를 시작했다. 통리원장 직무대행과 통리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학교법인 대동학원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 불교총지중유지재단 이사장” 등 종단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중앙총의회 의장 수현 정사는 추대사를 통해 “법공 대종사님의 종령 추대를 통해 총지중은 중생제도의 대서원을 실현하고, 세계 도처에서 번뇌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대일어

래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과 더불어 세계 속의 총지중을 자리 매김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추대법회에서 제12대 종령에 취임하는 법공 대종사는 법어에서 “덕이 미약한 사람이 중책을 맡으면 화를 피하기 어렵다. 종조의 불멸의 법통을 손상치는 않을까 두렵다. 종령이란 소임은 큰 지혜와 복덕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에 좌불안석이다. 법계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직분수행에 진력하겠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세확장 등 종단의 여러 과제와 난관을 헤쳐 나가 종단의 법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진호를 위하여 내지 전 인류의 복지증진 및 일체 유형 무형 중생을 해탈을 위하여 종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불전에 맹세하나이다.”고 대 비로자나 불전에 선사했다.

이어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종령으로 추대되신 법공 대종사님께 서는 부산 정각사 등 일선 사원의 주교와 통리원장, 법무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로서 수행과 종무행정은 물론 덕망 또한 높으신 분”이라며 “새로운 종령을 모신 총지중이 불교계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상생 발전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은 스님도 축사에서 “한국밀교의 정통을 이어가는 총지중의 새로운 지도자로 법맥을 계승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대전환의 시점이 도래했다”며 축하와 발전을 서원했다.

총지중 전국 교도를 대표해 김은숙 서울경기 지회장은 “오늘 법공 대종사님의 종령 추대식을 계기로 종령님의 가지력(加持力)으로 전통과 혁신의 조화 위에서 우리 총지중이 이 땅의 밀교의 중흥을 위한 거대한 주춧돌이 되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해탈케 하는 불국토를 이루어 ‘옴마니반메훎’의 진언염송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총명한 가지력으로 법공 대종사님의 건강과 법운 융창을 기원하옵니다”며 부처님 전 서원했다.

이날 추대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회성정사 편백은 스님 등 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총무원장과 이상호 문화관광부 종무관,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 등 교계 내외 귀빈 및 교도 1천여 명이 동참 성황을 이루었다. (12면 계속) 김종열 기자



### 봉축연등 접수

총기 47년 부처님오신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가득하시길 서원합니다.

접수처: 총지중 전국 각 사원

## 불교총지중 제91회 춘계강공회 개최

### 장시간 염송 정진하는 중간중간에 꼭 포행(布行)하는 수행방편 도입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제91회 춘계강공회를 역삼동 총지중 본원에서 개최하였다. 총기 47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으로 개최되었다.

매년 2회 소집되는 강공회는 현직스승과 기로스승들이 참석하여 종단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건의하는 자리이다.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개강불사 집공으로 시작되어 익일 종강불사까지의 일정 중에 제12대 종령으로 추대된 법공 대종사는 교유시간을 통해 종령교유시간 명칭을 익히고 가르치

다는 뜻을 가진 ‘강훈(講訓)’으로 정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다. 종령 법공 대종사는 “종령 추대법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추대 법회 참석자 일동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종령으로써 승단에 바라는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며 강훈이 시작되었다. (이하 강훈 요약)

“승단 간의 소통은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사만은 과유불급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인

사가 친절과 소통의 길입니다. 스승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 정진도 열심히 하시고 생활불교 스승으로서 몸 건강에도 밝아야 합니다. 장시간 염송 정진하는 중간중간에 꼭 포행(布行)하는 수행방편을 도입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승단 총회가 의견결집의 장,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승단교육도 이론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변모가 필요합니다. 종교계가 신도 수 감소와 승직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런 시기가 바로 승직자의 인격과 인품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라 봅니다. 종현 종범은 종의회에서 잘 정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승직자 본인 스스로가 바른 인간관계 형성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며 총지중 교화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줄 것과 변화될 종단 건설에 함께 노력

하자고 강훈하였다.

승직자들은 법공 종령께 ‘공식불사 들때 시간 폐지. 법규에 따라 성격에 맞는 승단총회를 소집, 교육은 경전공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종단 중·장기 계획과 목표를 마련하자.’는 건의를 드렸다. 이어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의 ‘불사의계 재연’과 밀교연구소 범경 정사의 ‘교법, 법요 토론’ 시간으로 이어졌다.

강공회 2일차에는 지성 기로스승의 교화경험담 강설을 통해 후배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이번 강설을 통해 당부의 말씀을 듣고 주옥같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불교총지중은 매년 4월 춘계강공회와 10월 추계강공회를 개최함으로써 승단의 주요 종무안건을 결집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 종/조/법/어

나의 재물 남을 주면 주는 그때 줄었지만 도로 돌아 불어옴은 우주 자연 법칙이다.

### 지/면/안/내

3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 3면 승단총회 6면 수계사탐방 11면 통신원소식



##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종령 법공 대종사

### 총리원장 인선 정사

### 중앙총의회 의장 수현 정사 사감원장 안성 정사

### 봉축 법요식

일시 : 5월 22일(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총지중 전국사원

부산 연등축제 일시 : 5월 6일(일요일) / 장소 : 송삼현 광장(총지중 부스운영)

서울 연등축제 일시 : 5월 12일(토요일) / 장소 : 동국대학교



## 불교총지중

# 1

## 봉행사

종령으로서 종단의 교법과 사법을 관장하시고, 넓고 깊은 혜안력의 반야 지혜로써 우리 총지종을 이끌어 주소서.



1



2



3

- 1 법통 및 법의 이운
- 2 본존예배
- 3 통리원장 봉행사
- 4 종의회의장 추대사



4

# 2

## 종령선서

종령으로서 불법을 준봉하고 종조의 법통을 승수하여 종단 발전과 국가 진흥을 위해 종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서합니다.



1



2



3



4

- 1 법의 수의
- 2 종령 훈향
- 3 법통 전승
- 4 종령 선서

# 3

## 종령법어

긴세월 종단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 바치신 역대 종령님의 깊은 애종심과 공덕을 마음깊이 치사드리고 본인 스스로도 직분 수행에 마음과 힘을 있는대로 다하는 진신갈력 하겠습니다.



1



2

- 1 유가삼밀
- 2 종령 법공 예하
- 3 종령 법어
- 4 한국불교종단협 촉사



3



4



▲ 태고종 총무원장 촉사



▲ 서울경인 지회장 촉사



▲ 식전 환담



▲ 합창단 촉사